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매출 감소 등 피해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불거진 이른바 '쿠팡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피해 조사를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1월 8일부터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을 통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을 둘러싼 논란으로 소비

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안이 커지며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그동안 피해를 공식적으로 접수할 전용 창구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쿠팡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조

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에서는 매출 감소, 거래 위축 등 쿠팡 사태로 인한 피해 사례를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89곳에 소속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들의 피해 현황

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은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내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별도로 신고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기후변화 속 과수 언 피해 막는다

농촌진흥청·KCC 공동 연구 '과일나무 전용 수성페인트' 개발



기후변화로 겨울철 기온 변동 폭이 커지면서 과일나무 언 피해(동해)가 잦아지는 가운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과수 전용 수성페인트가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페인트 전문기업 케이씨씨(KCC)와 공동 연구를 통해 과일나무 줄기에 바르는 '과수 전용 흰색 수성페인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과수 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열성과 신축성, 방수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나무 껍질의 팽창과 수축에 대응하는 신장률도 크게 개선됐다. 일반 페인트의 신장률이 5% 미만인데 비해, 과수 전용 페인트는 약 120%로 24배 이상 높아 균열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방수 성능 역시 일반 페인트가 3분 내 수분이 침투한 반면, 전용 페인트는 40분 이상 수분 유입을 차단해 언 피해 저항성을 높였다.

페인트 도포는 사과, 복숭아 등 과수에 관계없이 큰 줄기를 기준으로 지면에서 약 70cm 높이까지 붓이나 롤러, 분무기를 이용해 칠하면 된다.

최근 겨울철 기온 급변으로 과수의 생육 활동이 빨라지면서 한파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1월에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5도 이하의 한파가 발생해 전국 727헥타르의 과수원에서 언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과일나무 줄기에 흰색 수성페인트를 칠하면 낮에는 햇빛 반사를 통해 껍질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밤에는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인한 균열을 막을 수 있다. 이 방법은 오래전부터 활용돼 왔지만, 그동안은 과수 전용 제품이 없어 건축용 페인트를 대체 사용해 왔다.

이번에 개발된 전용 페인트는 태양광 반사율 92.1%, 근적외선 반사율 91.8%, 일반 페인트보다 각각 5.4%포인트, 7.3%포인트 높아 나무 표면의 온도 변화를 효과적으로 줄여준다. 실험 결과, 무처리 나무는 대기 온도 0도 기준 최대 13.1도까지 온도가 상승한 반면, 전용 페인트를 바른 나무는 최대 3.5도 수준에 그쳐 온도 스트레스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근 기자

상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에 223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참여기업 모집... 신규 기업 70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R&D) 사업에 총 223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월 9일부터 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글로벌 선도기술과 유망기술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대표

R&D 사업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신규 기업 70개사를 선정해 연구개발비 22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은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수출지향형' 과제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기업당 최대 2년간 1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적용되던 12개 전략품목 제한을 폐지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혁신 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전략기

술 분야는 평가 시 우대할 방침이다.

신설된 '점프업 연계형' 과제는 중기부의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상반기에는 5개 기업을 뽑아 2년간 최대 10억 원의 R&D 자금을 연계 지원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다.

K-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기능성 원료와 친환경 용기 중심에서 미용기기와 더마코스메틱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 10개 기업에 2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을 위한 '소셜벤처' 유형도 새롭게 도입됐다. 기후위기와 고령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셜벤처로 판별된 기업 중 5개사를 선정한다. 기술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파급성과 공동체 기여도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초격차 연계형' 과제도 5개사를 선정해 지원을 이어간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력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지원을 강화해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소상공인희망센터 신규 입주기업 5곳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보육 공간인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희망센터'에 입주할 신규 기업을 모집한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이하 경진원)은 오는 16일까지 희망센터에 입주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5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센터는 단순한 사무공간 제공을 넘어 성장 지원, 전문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등 단계별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문 지원기관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미만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성장 가능성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춘 기업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유류·향락업 등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승진·신임 부·지점장 사령장 수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은 8일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승진자와 신임 부·지점장에 대한 사령장 수여식을 열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8일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승진자와 신임 부·지점장에 대한 사령장 수여식을 열었다.

이번 인사 대상자는 총 75명으로, 1급 승진자 3명, 2급 16명, 3급 17명, 4급 14명과 함께 신임 부·점장 15명, 신임 영업점장 및 팀장 10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각 부서와 영업점에서 뛰어난 업무 성과와 리더십을 인정받아 이번 인사에서 승진하거나 새 보직을 맡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들이 참석해 전북은행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박춘원 은행장은 직접 사령장을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로운 직책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박춘원 은행장은 "이번 승진과 보직 임명은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인 동시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현장 중심의 영업력 강화와 고객 신뢰 제고에 앞장서 전북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북전주농협, 면세유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

북전주농협이 면세유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고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북전주농협은 8일, 조합원의 영농비 절감과 농업 현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면세유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유류 저장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후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저장탱크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류 누출, 관리 불편,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되는 유류저장탱크는 농업 현장에 적합한 규격과 안전 기준을 충족한 제품으로, 조합원들이 면세유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관·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유류 손실을 예방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는 한편, 전반적인 영농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우광 조합장은 "유류비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조합원 실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